

지엔티파마-화이자 손잡고 반려견 치매 '토종신약' 세계화

세계최초 개발 '제다큐어' 약효 입증
국내 동물병원 2000여곳서 처방
美 화이자와 제다큐어 생산 계약
태국 펫케어 SEA서 협업요청 쇄도

토종 기술로 만든 반려견 치매 치료 신약이 화이자 등 글로벌 빅파마와 협의하며 해외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건다. 신약 개발 벤처기업 지엔티파마는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신약 '제다큐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화이자의 자회사 등 다국적 동물약품 회사 등 7개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비밀 유지 계약으로 계약 사명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엔티파마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종표적 뇌세포 보호 신약 제다큐어는 사람의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하게 인지 기능장애를 앓고 있는 반려견에서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돼 2021년 2월 국내 최초 합성신약 동물용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현재 국내 동물병원 2000여곳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펫케어 SEA(South East Asia) 2024' 지엔티파마 홍보 부스.

에서 처방되고 있다.

반려견 인지기능장애는 8살이 지난 노령견의 14~35%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질환 치료제는 없는 실정이다.

지엔티파마는 "인지기능 장애를 앓고 있는 노령견이 제다큐어를 복용한

후 기억력을 회복하는 증상 개선과 질 환 치료 효과가 임상시험에서 확인됐고, 지난 3년 동안 시판 후 조사 연구에서 장기 복용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됨에 따라 제다큐어의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 진출에 맞춰 지엔티파마

는 제다큐어 제형 일부를 변경했으며 미국 화이자의 자회사인 화이자 센터윈에서 제다큐어를 생산하는 포괄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지엔티파마는 "화이자 센터윈에서 제다큐어 완제의약품 생산이 완료되면 해외시장 진출이 개시된다"며 "이를 위해 3개의 다국적 동물약품 회사를 포함한 7개 제약회사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북미, 유럽, 동남아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다큐어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펫케어 SEA(South East Asia) 2024'에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펫케어 SEA 2024'는 45개국 400개의 전시 업체, 75개국 1만5000여명의 유통 대리상이 참가한 동남아시아 최대의 반려동물 산업 전시회이다.

지엔티파마 애니멀 헬스 사업본부이진한 본부장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해외 업체와 유통 대리상들의 제다큐

어 협업 요청이 쇄도했다"며 "특히 사람의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하게 인지 기능장애를 앓는 반려견에서 기억 및 일상생활 회복 약효가 입증된 신약까지 개발됐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했다"고 전했다.

2021년 5월 국내에서 출시된 제다큐어의 매출은 매년 40%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연 매출 2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동물약품 시장 규모가 세계 의약품 시장의 1% 정도로 추정되고,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이 연간 4.42%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제다큐어의 글로벌 매출은 2029년에 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엔티파마 광병주 대표이사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지기능장애를 앓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적응증이 계속 확장되고 있어 해외 진출이 개시되면 제다큐어는 3~5년 이내에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KT, 데이터브릭스와 데이터·AI 혁신 업무협약

한국형클라우드·AI모델 첫 협업
임직원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강화

KT가 AI 전환을 위해 글로벌 데이터 전문 기업과 협력한다.

KT는 데이터브릭스와 데이터·AI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국내 AX(AI 전환)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 솔루션과 MS 협력 기반으로 KT가 개발하는 한국형 클라우드·AI 모델의 첫 번째 협업 사례다.

데이터브릭스는 샌프란시스코 거점에 전 세계 7000여 명 조직으로 구성된 글로벌 데이터·AI 전문 기업이다.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은 개방형 통합 데이터 플랫폼인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에 생성형 AI를 접목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KT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Secure Public Cloud) 기반 데이터·AI 플랫폼 개발, 산업별 데이터 PaaS 기반 AI서비스 확대, 데이터·AI 전문 기술 역량 강화 분야에



KT 오승필 기술혁신부문장(CTO·오른쪽)과 데이터브릭스 아르살란 타바콜리(Arsalan Tavakoli) 공동창업자 겸 필드 엔지니어링 총괄 수석 부사장이 데이터·AI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국내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

협력한다.

데이터·AI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교류와 협업도 추진한다. 데이터 현대화 및 교육을 추진해 KT 임직원들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CoE)를 구성해 양사 기술 교류와 역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 실전 프로젝트, 기술 컨설팅을 수행한다.

KT에 따르면 KT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보안성·규제 요건을 만족하면서 최신 AI·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KT는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AI 서비스와 다양한 SaaS·PaaS를 확대해 고객들에게 IaaS부

터 SaaS까지 한 번에 제공할 계획이다. 목표를 위해 향후 국내외 전문 기업과 파트너십을 지속 체결하고 AX 생태계 확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CTO)은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고객들도 보안이 강화된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신의 데이터, AI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KT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전문 솔루션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데이터브릭스 아르살란 타바콜리 공동창업자 겸 필드 엔지니어링 총괄 수석 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으로 조직의 데이터에 최적화된 AI, 즉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민간 및 공공 부문에 걸쳐 한국의 다양한 고객들이 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KT 임직원들이 고도화된 데이터 및 AI 기술을 습득하고, 데이터 및 AI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제주항공 환승여객 수요 집중 수익모델 확보 나서

제주항공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환승여객 수요 창출에 집중한다.

제주항공은 현재 취항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 50개 도시, 73개 노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선 조합을 통해 여행객들의 이동 편의 증대, 고객 선택권 확대 등은 물론 신규 수요를 발굴해 수익 모델을 다각화해 나간다고 6일 밝혔다.

이미 제주항공은 엔데믹 이후 일본 소도시 신규 취항과 동남아 신규 노선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인천 공항과 히로시마공항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히로시마에서 출발해 인천을 거쳐 태국, 베트남, 필리핀, 홍콩 등으로 이어지는 환승 상품을 개발했다. 이외 에도 마쓰야마, 태국, 베트남 등을 경유하는 다양한 환승 옵션을 제공해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환승여객 수요 증가로 나타났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제주항공을 이용해 한국을 경유한 환승객 수는 9만9570명으로 지난해 대비 35% 증가했다. 다만 전체 국제선 수송객 대비 환승객 비중은 1.5%에 그치고 있다.

제주항공은 환승여객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14년 제주항공을 이용한 환승객은 1000여명에 불과했지만 약 5년 만에 150배 넘게 성장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성장세가 주춤했으나 2021년 1856명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9만7092명을 돌파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환승객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신규 취항, 해외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노선 조합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발굴해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그냥 쉬었음' 인구 24.5만명 ↑... 20대 5.4만명, 14.1% 급증

통계청, 8월 비임금근로 등 조사
비경제활동인구 1621.1만명 달해

일할 능력은 있으나 구직활동 없이 쉬는 인구가 1년 전에 비해 24만여 명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20대에서만 5만 명 넘게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저조한 노동시장 참가율이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8000명 증가했다. 비경인구의 비중은 35.6%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비경인구 중 '그냥 쉬었음' 인구가 24만5000명 늘었다. 특히 20대에서 5만4000명(14.1%)이나 증가했다. 30대도 1만7000명(5.8%) 늘었다.

쉬었음의 이유로는 몸이 좋지 않아서(35.3%),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8.4%),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17.9%) 순으로 높았다.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9.2%)는 1년 전보다 1.3%포인트(p) 상승, 몸이 좋지 않아

서(35.3%)는 2.0%p 하락했다. 쉬 이유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15~29세에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30.8%)이 가장 높았다. 그 외 연령대는 '몸이 좋지 않아서'의 비중이 가장 컸다.

앞으로 1년 내에 취업이나 창업할 의사가 있는 비경인구는 336만1000명으로 전체 비경인구의 20.7%를 차지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0.4%p 감소했다. 연령대별 의사를 살펴보면 30대(45.2%), 20대(44.6%), 40대(33.2%), 50대(28.3%), 60대

(19.9%) 순이었다.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구성비는 여자(36.4%)가 남자(14.9%)보다 높았다.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사유는 '본인의 건강 때문에'(37.2%), '다른 일 또는 활동과 병행'(23.8%), '육아·자녀교육'(17.5%) 순으로 높았다.

취업 시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은 200만 원~300만 원이 4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0만 원 이상(27.3%), 100만 원~200만 원(20.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65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7000명 줄었다. /세종=김연서 기자 kys@